

# S.ZIN

SGI MAGAZINE

2025 SPRING — VOL. 58



## CONTENTS

**S:ZIN**  
통권 제291호  
**발행처**  
SGI서울보증 인재개발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연지동 136-74)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전화**  
02-3671-7594  
**팩스**  
02-3671-5590  
**홈페이지**  
www.sgic.co.kr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앤씨컴퍼니



### SGI 인사이트

06

**트렌드 키워드**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와  
기업의 미래

10

**사유의 시간**  
잡담만 잘해도 당신은 호감형

14

**아름다운 동행**  
누군가를 위해 달린다는 것,  
팀 호이트가 전하는  
사랑의 의미



### 어바웃 SGI

16

**SGI 앙케이트**  
봄이 왔어요!  
서울보증인의  
나들이 계획은?

18

**SGI 스토리 1**  
금융사의 '책임 좌표',  
책무구조도로 그리다

20

**SGI 스토리 2**  
AEGIS,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6

**SGI on air**  
SGI서울보증 사장,  
함께 걸어온 새로운 출발의 길



### 라이프 인 SGI

30

**만남의 미학**  
궁궐에서 마주한 역사,  
광해군을 걷다

34

**퇴근길 문화**  
퇴근 후,  
나를 단련하는 또 하나의 삶

36

**트립 어드바이저**  
잠시 머문 계절,  
교토의 봄

38

**북 토크**  
봄날, 마음에  
햇살처럼 내려앉는 책

40

**불만한 꿀튜브**  
꽃피는 봄에 딱!  
최고의 야외운동



### SGI 커넥트

42

**미식관, 맛집지도**  
입맛 도는 계절,  
시원하게 메밀국수 한 그릇

44

**SGI 특! 특!**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46

**문화레터**  
도심을 벗어난 하루,  
미술관에 머물다

48

**SGI News**

51

**SGI Quiz**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봄은 반드시 온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한다.

오늘 슬프고 절망스럽더라도  
내일은 기쁨과 희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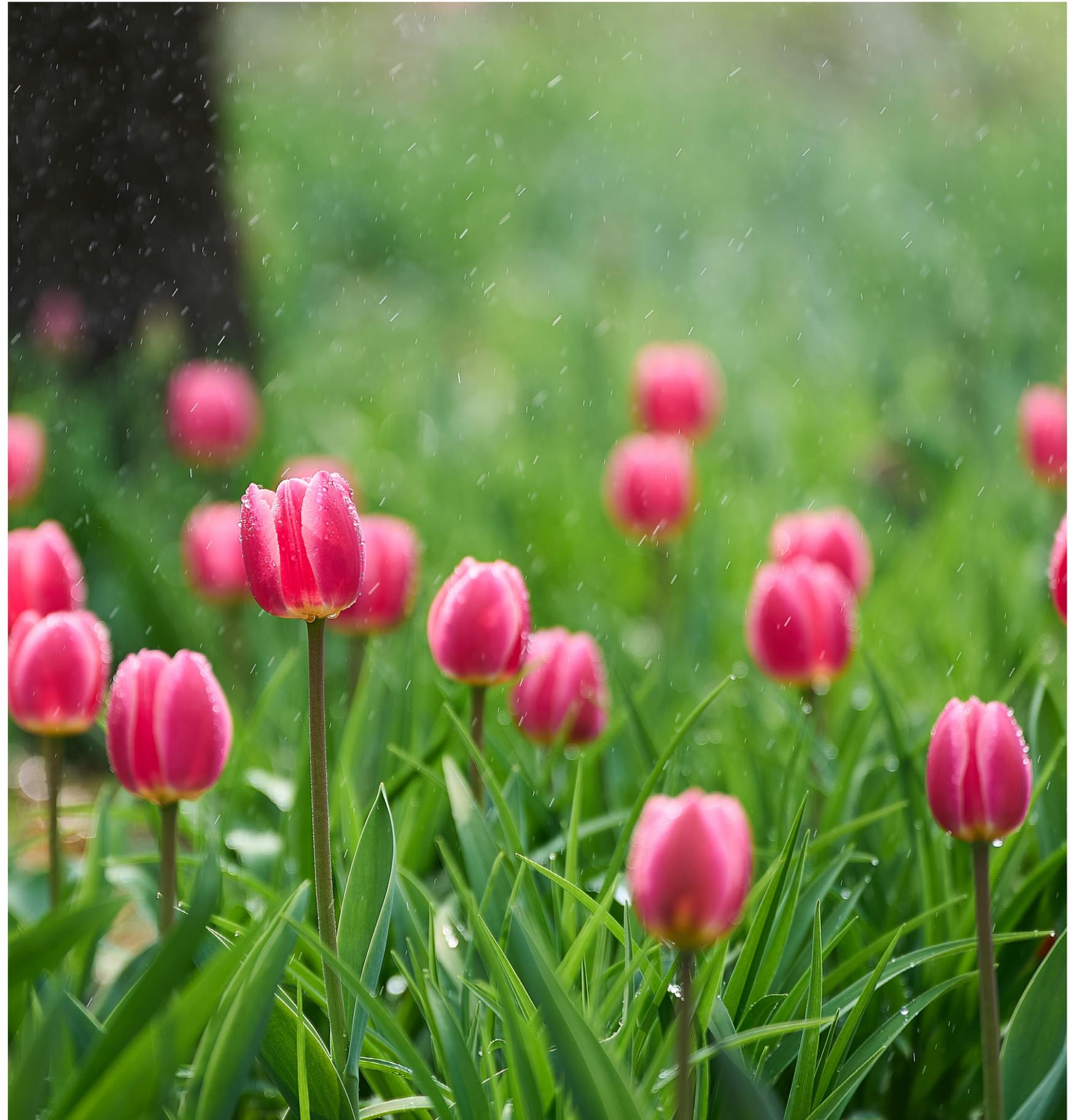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다.  
절망이 클수록 희망은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봄은 단지 계절의 이름만이 아니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이름이다.  
나 자신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아무리 차가운 계절이라 해도,  
그 안에 피어날 꽃의 씨앗은 숨어 있다.  
그 씨앗은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오며,  
결국 꽃을 피운다.

우리 삶도 그렇다.  
지금 얼마나 차갑고 어두운 시간이라 해도,  
그 끝에는 따뜻한 햇살과 피어나는 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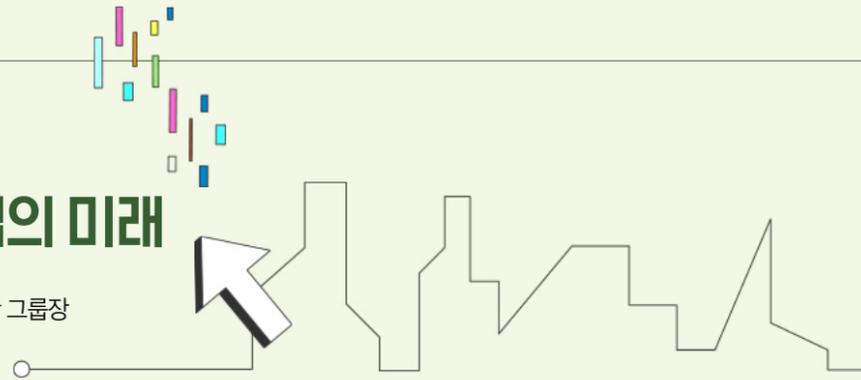
희망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 온다.  
지금 당장 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봄이 오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정호승



#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와 기업의 미래

글. 이동기 딜로이트컨설팅 코리아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그룹장



## 글로벌 규제환경의 변화 - 美 트럼프 신정부, 親 디지털자산으로

2025년 3월 7일, 미국 백악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서밋(White House Crypto Summit)'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행사에서, 미국을 '전 세계 크립토 수도(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자산<sup>1)</sup>을 금과 석유처럼 전략 자산으로 비추<sup>2)</sup>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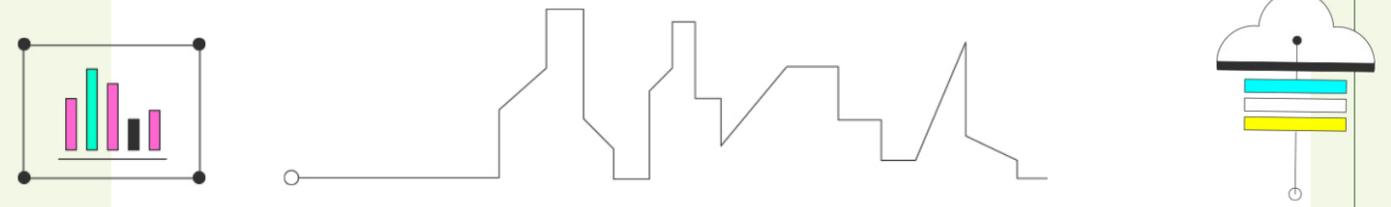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법안(GENIUS Act)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및 촉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추진해온 CBDC 프로젝트 및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해 6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시장법(MiCA)'을 시행하면서 투자자 보호, 사업자의 라이선스 간소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및 자금 세탁방지 조치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외에도 일본은 '22년 기시다 총리의 'Web3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바이, 싱가포르 등 더욱 많은 국가들이 크립토 및 Web3 친화적인 법안을 정비하여 글로벌 기업의 자국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주도로 디지털자산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적 고민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 개설이 개인에게는 가능하지만 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로드맵 발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우수한 법인의 시장 참여는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법인의 참여가 올해부터 즉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당국,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므로, 각 기업별 로드맵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자산, 글로벌 비즈니스 동향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및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거래량 중 약 80~90%가 기관투자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24년 초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 지수 펀드) 거래를 승인한 이후, 상장 첫날 거래 금액이 6조 원을 넘는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국 시장의 사례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투자-재무전략에서도 디지털자산이 주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는 '20년부터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을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25년 3월 현재 약 499,000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화로 약 60조 원이 넘는다. 비트코인 채택효과로 회사의 주가가 '20년 이후 2,500%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편, 회사의 재무 성과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 시 회사의 주가 폭락과 파산위험을 우려하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글로벌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Tesla)사는 '21년에 비트코인을 테슬라 차량 구매결제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환경오염, 환불 논란 등으로 현재는 결제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이 기업의 영업과 재무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블랙록(BlackRock), 페이팔(PayPal), 비자(Visa), 마스터(Maser), 블록(Block Inc., 전 스퀘어) 등 디지털 자산을 영업 및 재무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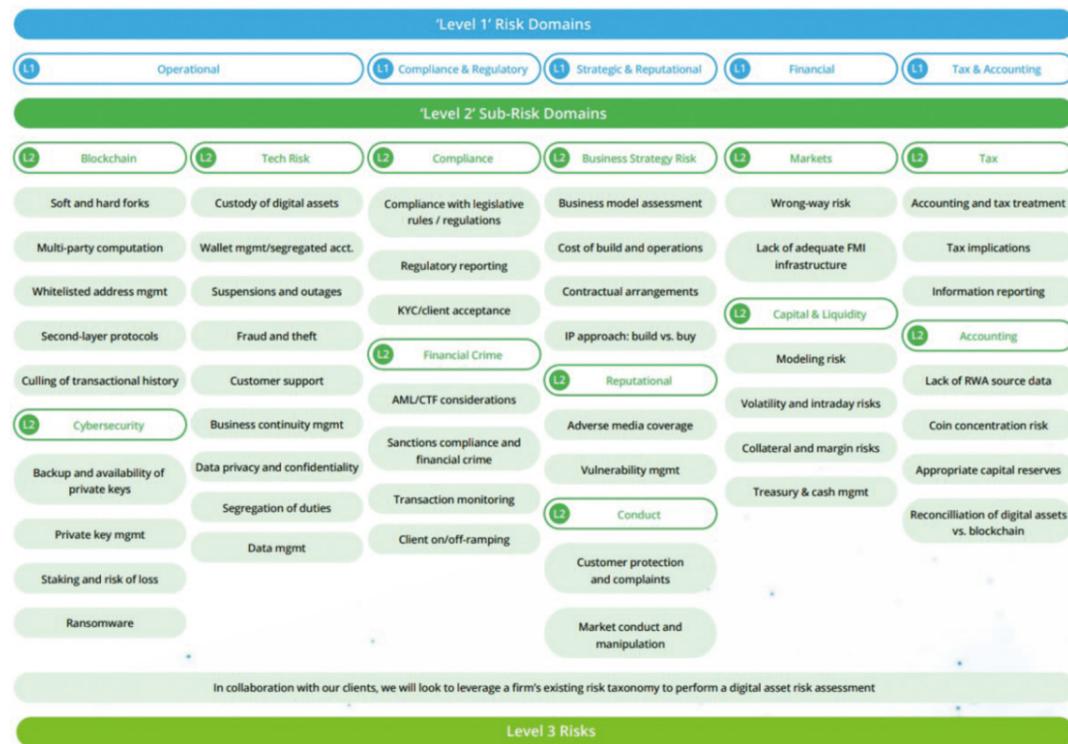
또한, 글로벌 금융업계는 토큰화(Tokenization)를 차세대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토큰화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에 금융자산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해당 토큰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다수의 금융회사 및 컨설팅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 발행, 레포(Repo) 거래, 상장지수상품(ETP), 상품(Commodity)의 토큰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금융서비스 산업에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투자은행(EIB)은 HSBC와, 골드만삭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토큰화 채권을 발행하여 결제 시간의 단축과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오닉스(Onyx)를 활용하여 3천억 달러 이상의 일중 레포 거래를 촉진하였으며, 스페인의 대형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 은행은 콩, 옥수수, 밀 등 농산물을 토큰화하고 이를 담보로 아르헨티나 농부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사업화한 사례도 있다.



1. 한국에서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Virtual Assets)'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글로벌 생태계 및 산업계의 사용빈도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으로 기술하였다.  
2. 미국은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가로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현재 시세로 약 24조 원에 해당한다.

## 디지털자산 사업의 리스크 관리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신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반한다. 전반적인 리스크 유형은 아래의 그림(Deloitte's Digital Assets Risk map)과 같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리스크 유형에 대하여 기업들이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투자 및 운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략 및 거버넌스 리스크'는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수단이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디지털자산의 본질과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무관리 리스크'도 중요하다.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투자 및 재무 전략에 도입할 경우,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견고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자체보관(Self-custody) 방식 또는 제3자 보관(Third-party custody)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관련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선택한 방식에 대한 최적의 통제 및 보안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자산의 거래 및 이체(해외회사 송금, 관계사 대출 포함)를 승인하고 실행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운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보관, 사용 승인 권한,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각 직무와 책임을 구분하여 운영 관리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기업 내부에 명확한 권한체계와 직무분리(SoD)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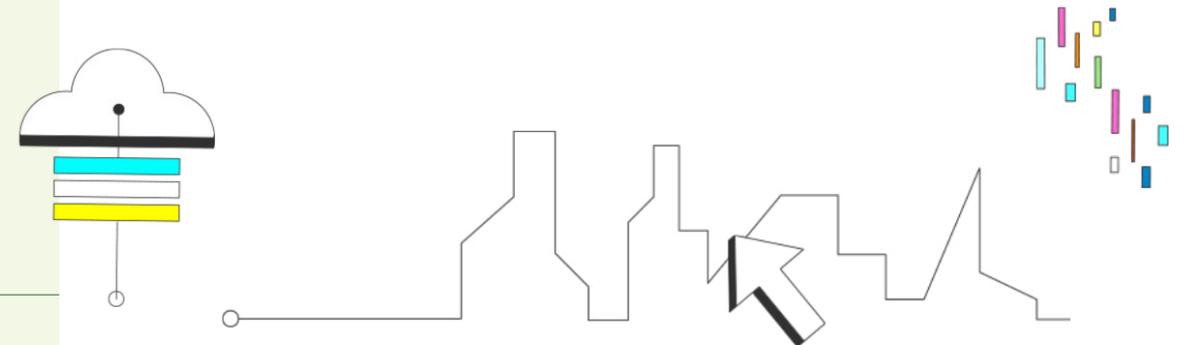
넷째, '블록체인 및 기술 리스크'도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자산은 사용되는 블록체인(메인넷)에 따라 기술적 특성과 리스크가 상이하다(예를 들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컴퓨터 코드와 이더리움의 코드 기반은 다르다). 따라서, 메인넷의 작동방식, 생태계 건전성, 기타 백서의 내용과 거래 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기술적 지원과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역시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 의무(KYC),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3년 전 국내 게임사들이 P2E 기반의 블록체인 신사업을 해외 자회사를 통해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CBDC 발행 금지, 미국 달러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지지, 자산의 토큰화는 글로벌 질서의 재편을 예고한다.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입법 환경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 기업들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성장 사업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한다.



# 잡담만 잘해도 당신은 호감형

글.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잡담이란 쓸데없이 떠드는 말을 뜻한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잡담이 쓸데없어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잡담은 긍정적인 첫인상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대인 관계에도 도움이 되며 비즈니스 파트너의 긴장과 경계를 풀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 상대와의 공통점 등 잡담의 단골 소재를 갖고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잡담을 주고받아야 한다. 잡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와도 잡담을 할 줄 알아야 잡담 능력을 단련할 수 있다.

## 1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잡담

대중교통 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지하철 안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다. 특히 할머니들이 참 잡담을 잘 하는 편이다. "어디 갔다오느냐", "딸네 집에 김치 해주고 오는 길이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온갖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러면서 급속히 친해진다. 내리면서 아쉬워하기까지 한다. 처음 본 사람과 저렇게 쉽게 친해진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처럼 느껴진다. 근엄하고 엄숙한 대한민국 아저씨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잡담을 자주 하는 편인가, 아니면 주로 진지한 얘기만을 나누는 편인가? 회의를 할 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주제와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편인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잡담이다. 잡담이란 말 그대로 잡스러운 말이다.

잡담은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이다. 잡담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준다. 잡담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사이에 다리가 만들어진다.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다리만 유지하면 다른 화제는 저절로 따라온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동물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법이다. 잡담에 능한 주인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를 만든다. 잡담은 땅 고르기와 같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잡담은 타인을 고통에서 구한다. 스탠딩파티 같은 곳에서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먼저 따분해 보이는 사람, 내내 서 있는 사람, 화제를 꺼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 비결이다. 격의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 비결이다. 격의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2** **잡담은 사실 중요한 능력**  
할 말이 없어 주뻗거리며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잡담 한두 마디를 나눌 수 있다면 뽀뽀한 분위기는 금세 사라지곤 한다. 우리는 매일 잡담을 해야 할 순간에 처하고 또 매일 잡담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잡담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래끼리 하는 대화에서는 엄청 활기를 띠는데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 맞닥뜨리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린다. 이때 상대와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잡담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며 좀 더 많은 만남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갖춰야 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잡담은 반드시 익혀야 할 능력이다. 잡담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의해보자.

첫째, 잡담을 잘하면 첫인상이 좋아진다. 인사만 달랑 하는 사람과 인사 후 간단하게 한두 마디 잡담을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인상에 남을까? 둘째, 잡담 능력은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대하는 사람은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 셋째, 잡담은 분위기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잡담은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없앨 수 있다. 넷째, 잡담을 하면 상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 현대인은 늘 긴장하면서 살고 있다. 어깨에 늘 힘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진실한 얘기를 나누기 어렵다. 긴장시키는 건 쉽지만 긴장 풀어주는 건 어렵는데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바로 잡담을 건네는 것이다. 다섯째, 잡담이 실제 일에 도움이 된다. 최고의 영업은 '영업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업을 하는 것'이고, 최악의 영업은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다. 잡담이 사실 중요한 능력이다. 누구 하고나 잡담을 잘한다는 건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것과 같다.

**3** **잡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잡담에 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잡담은 알맹이가 없어야 한다. 알맹이가 없다는 데 잡담에 의의가 있다. 둘째, 잡담은 인사에 더해 이뤄진다. 인사를 나눈 후 던지는 가벼운 그 무엇이다. 셋째, 잡담에는 알맹이가 없고 목적이 없는 만큼 결론 따위는 필요 없다. 넷째, 잡담은 과감해야 한다. 과감하게 시작하고 과감하게 맺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잡담은 혼

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5가지 원칙을 이해한 다음 잡담의 기본 매너를 익히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누구라도 잡담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말솜씨가 좋은 것과 잡담에 능한 것은 분명 다르다. 쓸데없는 말로 치부해 잡담을 싫어했던 사람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숫기가 없는 사람도 말문이 트여 바로 써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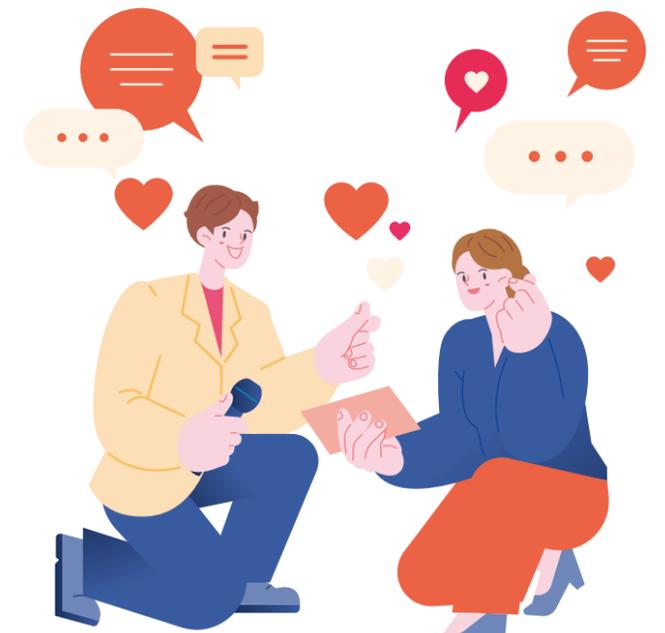
잡담은 토론이 아니다. 결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능수능란한 화술과도 관계가 없다. 알맹이가 없는 의미 없는 대화일지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상대의 호감과 신뢰를 얻는 데 의의가 있다. 필요한 것은 잡담을 이어갈 수 있는 스킬이다.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긍정과 칭찬으로 대하는 것,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 화제를 이끌어 가는 것 등이 그러하다. 잡담은 화제가 풍부하거나, 수다를 좋아하거나, 말솜씨가 뛰어난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4** **잡담을 단련하는 방법**  
첫째, 칭찬이다. 칭찬으로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한다. 최선은 사소한 칭찬이다. 칭찬은 잡담의 기본이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특별할 것 없는 부분을 칭찬하면 된다. 둘째,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대상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지금 핫한 화제를 입수했다면 바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 매일 뉴스와 신문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 잡담 소재를 얻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골이 아닌 패스에 능해야 한다. 잡담에서는 상대의 화제와 자신의 화제가 차지하는 비율, 즉 화제 지배율이 중요하다. 넷째, 자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잡담을 못 나누는 이유 중 하나는 강한 자의식이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잘 건네지 못한다. 과도하게 쑥스러워하거나 낮을 가린다. 잡담을 잘하고 싶다면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다섯째,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흔히 그 사람과는 급이 맞지 않는다면서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다. 잡담은 다르다. 잡담은 누구 하고나 할 수 있다. 누구 하고나 잡담을 할 수 있다는 건 별다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다는 걸 뜻한다. 그럼 어떤 얘기를 소재로 삼아야 할까? 정답은 없다. 한눈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

거리를 찾아보면 된다. "이건 뭐예요?"라고 묻기만 해도 괜찮다. 잡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재 창고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늘 감성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그럼 정보 감각이 높아져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잡담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잡담 능력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잡담을 잘하는 사람과 절대 잡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사람과 급이 맞는 사람과는 말을 잘하지만 자신과 다르거나 급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다. 늘 잡담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본론은 천천히 하는 사람과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을 걸고 누군가 말을 걸 때 잘 응대하는 사람과 절대 남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남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된다.





## 누군가를 위해 달린다는 것, 팀 호이트가 전하는 사랑의 의미

글. 편집실

### 위대한 여정의 시작

딕 호이트 부부는 1962년 아들 릭 호이트를 낳았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태어나기 직전 탯줄이 릭의 목을 감았고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내렸고, 릭은 사실상 식물인간이며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딕 호이트 부부는 아들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포기할 수 없었다.

릭이 10살이 되던 1972년 한 대학의 공학자들이 릭을 위한 컴퓨터를 만들었다. 고 스티븐 호킹 박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릭도 머리를 움직여 원하는 글자를 골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넸다.

팀 호이트의 시작은 단순했다.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 계속해서 정적으로 앉아 있어야 했던 아들 릭이 달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 딕은 곧바로 휠체어를 끌고 밖을 나섰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생각조차 안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작정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달렸다. 휠체어에 앉아서 바람에 머리칼이 휘날리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있는 것을 본 딕은 이때 달리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하는 달리기였다.



###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기록

팀 호이트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철인코스 6차례), 듀애슬론 22차례 등 총 1천 120개 대회를 완주했다. 보스턴에 서만 32차례 완주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총 6천 10km)하기도 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아들이 앉은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탔다.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거라는 주위 사람들 반응에 아버지는 “릭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첫 번째 완주에 16시간 14분이 걸렸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까지, 철인 3종 경기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까지 각각 단축됐다.

처음엔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은 박수로 응원하기 시작했다. 자선재단 팀 호이트의 회원이 점점 늘었고, 2013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인근에 호이트 부자의 동상이 세워졌다.

딕 호이트는 만 73세이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을 끝으로 장거리 대회 출전은 자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폭탄테러 사건으로 대회가 중단됐고 결국 2014년 다시 출전, 7시간 37분 33초 기록으로 완주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 딕 호이트는 2021년 3월 17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그가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 5월 22일 아들 릭 호이트 또한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함께’라는 마음이 주는 위로와 용기

팀 호이트와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의 삶은, 단순한 마라톤 완주 기록 그 이상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이라 불렀던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든 두 사람의 여정. 그들의 달리기는 누군가를 앞세우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등을 내어준 사랑의 이야기다.

딕 호이트는 아들에게 세상의 경계가 어디인지 가르치기보다, 아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팀은 그런 아버지를 통해, 삶은 비록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릴 때 더 크고 따뜻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팀과 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 남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는 어디까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가 내 곁에서 “괜찮아, 내가 널 끝까지 데려가 줄게”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팀 호이트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앞서 달리는 일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완주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 봄이 왔어요! 서울보증인의 나들이 계획은?

따뜻한 햇살과 산뜻한 바람이 기분 좋은 계절, 봄! 서울보증 여러분은 올봄 어디로 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누구와, 어떤 활동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이번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봄나들이 계획과 야외활동 취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설문 참여: 2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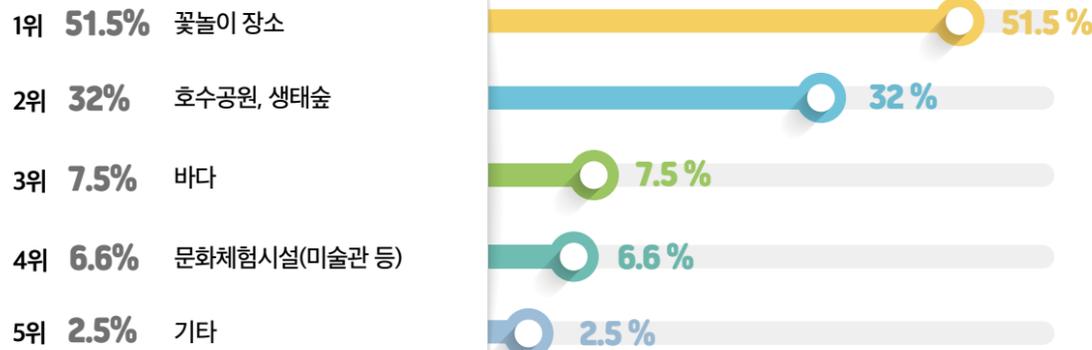
이번호  
당첨자

신현인 감사실 팀장, 김영진 금융보상센터 대리, 박수용 대전충청본부 수석  
강건욱 기업회생부 과장, 이동호 역삼지점 선임

※ 참여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해 상품권(올리브영)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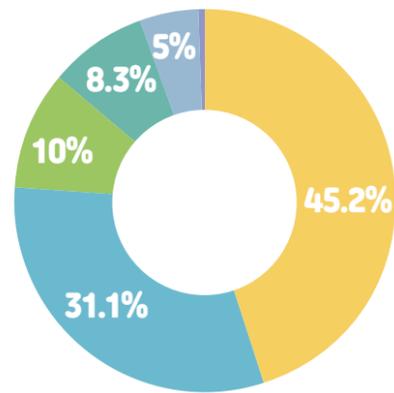


## 1. 봄나들이로 가장 가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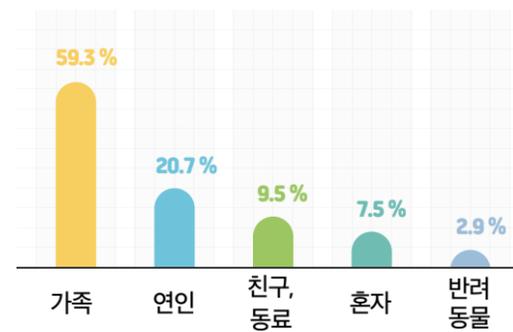
## 2. 봄나들이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 1위 45.2% 맑은 공기와 광합성. 심, 리프레시
- 2위 31.1% 가족들과 추억 만들기
- 3위 10% 소녀감성 충만한 나. 봄꽃구경
- 4위 8.3% 실내보단 야외지! 야외활동 즐기기
- 5위 5% 남는건 사진뿐! 인생샷 촬영
- 6위 0.4% 남는건 사진뿐! 인생샷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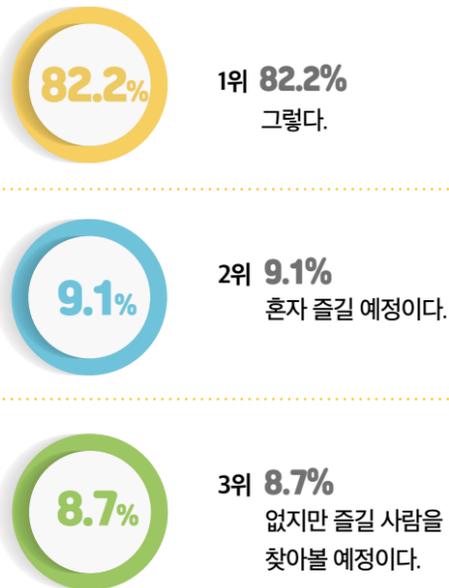


## 3. 봄나들이를 누구와 함께할 예정인가요?

- 1위 가족
- 2위 연인
- 3위 친구, 동료
- 4위 혼자
- 5위 반려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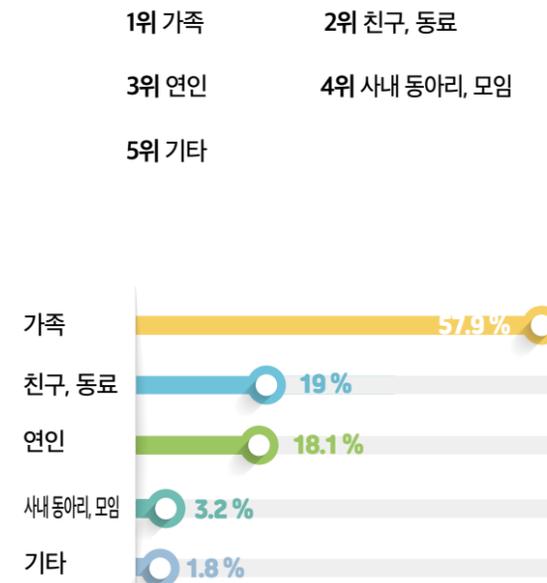
## 5. 야외운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있나요?



## 4. 따뜻한 봄철에 야외운동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 1위 등산, 트레킹 49.4%
- 2위 자전거 라이딩 19.5%
- 3위 마라톤, 러닝 10.4%
- 4위 테니스 9.1%
- 5위 축구 4.6%
- 6위 기타 7.1%

## 6. 야외운동을 누구와 함께 즐길 예정인가요?



# 금융사의 '책임 좌표', 책무구조도로 그린다



지난 2월, 장장 7개월의 대장정 끝에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컨설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진행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 지면을 빌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글. 안송원 준법지원실 대리

## 금융사 내부통제, 왜 책무구조도일까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중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횡령의 규모도 크게는 몇백억 원 대로 너무 자주, 큰 규모로 발생하는 바람에 “잠시 지옥 가면 부자 된다... 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실제 뉴스 기사 제목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불안전 판매도 한몫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안전 판매에 책임이 있는 은행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하여 감독 당국이 제재 처분을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이 취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 든 칼이 바로 '책무구조도'입니다. 책무구조도를 휘둘러서 혼란에 빠진 금융계를 평정하고 비탄에 빠진 금융소비를 구해내겠다는 것인데요. 대표이사과 임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근거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 시행(24.7.3.)한 것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 등 정의

※ **책무구조도** : 임원의 직책별 「금융사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로,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로 구성됨.

- **책무** :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 **책무기술서** :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
- **책무체계도** :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

\* 책무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책무구조도가 제출되고 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무 배분 대상 임원들에게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임원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왼손에는 금융사고, 불안전판매와 같은 위법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및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오른손에는 어떤 임원을 책임자로서 제재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금융사별 좌표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 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우리 회사를 포함한 자산 5조 이상의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올해 7월 2일까지이지만, 금감원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하여 4월 11일 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및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는 ①사전컨설팅, ②책무구조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③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인센티브가 제공(제출시~25.07.02.)됩니다.

\* 준법 1111-221(2025.04.14.) "책무구조도(시행)"

책무배분대상 임원
<p><b>이사(2명)</b> : ① 대표이사, ② 경영수석부부장,  <b>업무집행책임자(7명)</b> : ③ 영업부부장, ④ 운영부부장, ⑤ 준법감시인, ⑥ 위험관리책임자,                      ⑦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⑧ 정보보호최고책임자,                      ⑨ 재무관리주요업무집행책임자,  <b>직원(2명)*</b> : ⑩ 감사실장, ⑪ 선임계리사</p> <p>*직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책무 배분 가능</p>

최종 제출된 우리회사 책무구조도는 회사 책무체계도 1개, 임원별 책무기술서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초반에는지역본부장 7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에게 책무를 배분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은행·지주 시범운영 결과' 발표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총 11명으로 책무 배분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상하위 임원 중층 관계에서는 최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하위 임원이더라도 지정책임자(준법감시인 등 법에서 특정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게는 책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1일 실시된 금감원 사전컨설팅에 따른 권고사항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발생

회사 책무구조도가 제출되었으니 임직원은 책무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난 컨설팅시 책무구조도와 함께 '책무관리매뉴얼'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책무관리매뉴얼'이란 임원의 '책무별 점검항목(책무관리항목)'을 정리한 문서로, 관리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임원 소관 부서장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무관리매뉴얼'에 따라 각 부서장은 매반기(중요도에 따라 매분기, 매월) 책무관리 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물을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증빙은 추후 금융사고 발생 또는 금감원 검사 시 책무별 임원의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재조치 감경 및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준법지원실에서는 책무구조도와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에 몰입하였습니다. 유관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을 드릴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회사 내부통제 역량 향상을 위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EGIS,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리. 편집실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이룬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준  
모든 임직원과  
프로젝트에 성심을 다해  
함께 해 준 수행사 및  
개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재영 IT본부장

먼저 준비 및 실행 기간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 준 모든 임직원과 프로젝트에 성심을 다해 함께 해 준 수행사 및 개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시스템을 A~Z까지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참여한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업무를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고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주도하고 수행사도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었기에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EGIS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IPO와 맞물려 회사의 새로운 Quantum Jump를 하는 데 있어 기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 이장용 차세대추진부장

우리 회사는 ISIS 이후 약 17년 만에 대규모 전사 프로젝트인 AEGIS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녹록지 않았음에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AEGIS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회사와 세부 실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주신 여러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EGIS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난관이 없었다고 말할 순 없겠으나 고비마다 함께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곁에 있어 준 선후배 동료들의 진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신 분들 덕분에 늘 든든했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전합니다.

시작, 진행, 마침을 언제나 함께 해 주었고, AEGIS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같이 울고 웃었던,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밀어주고 끌어줬던 차세대추진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산이 끝나는 곳에 네가 있었다. 환한 미소와 너울거리는 손짓으로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미소 뒤에 감춰둔 고단함을미안하다.. 흔들어주는 손옆에 흐르는 땀방울을..

감사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모두에게 더 좋은 일과 행복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년 6개월의 모든 순간을 담은 AEGIS가.



## 차세대 추진부 Interview, 차세대추진부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사업관리 & IT기획
2. 인프라 & 아키텍처 & 디지털코어
3. 영업 & 청약 & 심사 & AICC
4. 신용보험, 보상
5. 고객 & 상품 & 구상
6. 디지털채널 & 경영지원
7. 데이터 & 결산지원



인터뷰이	선정 사유
이영석 팀장	ISIS 차세대 때 담당자 시절을 보내고, AEGIS 차세대를 팀장으로 참여한 직원
김희중 대리	PI추진부 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직원
배유리 선임	신용보험 전담 BIZ
신다해 선임	차세대추진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신입시절을 차세대와 함께한 직원

### Q. AEGIS에서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편리한 기능이나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영석 팀장**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포털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 현황, 표준, 품질, 흐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수, 통계 화면, 통계 보고서 등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데이터 포털은 S-Square System Map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배유리 선임** 신용보험의 현업 분들이 체감하시기에 바뀐 부분은 개별심사와 정산 출수납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험 담당자가 전문을 예외 처리하는 개별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사내용 템플릿화로 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금융영업부 상품의 출수납 작업은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인데 결의서 생성 자동화 및 입출금내역 불일치 검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업무가 가능했던 건 업무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던 금융영업부 김새봄 선임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의 테스트도 꼼꼼하게 진행해주셔서 결함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희중 대리** '상품운용포탈'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경우 Text 기반으로 검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검색되거나,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AEGIS 시스템을 통해 기안문서, 업무기준, 보증내용해설서, HOT-LINE, ITSM 등 전사 상품 관련 지식을 상품코드 기반으로 적재 및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 프로젝트 진행 중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이영석 팀장** 제가 담당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ISIS 데이터를 AEGIS 시스템 구조에 맞게 변환 및 이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차세대 시스템 오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 9차례에 걸친 주말 리허설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한 결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픈 당일에도 계획된 일정 내에 무리 없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배유리 선임**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ISIS 체계 위에 구축되어있는 모형을 AEGIS에 연결하는 작업을 모형을 새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구축 당시 전산요건정의서 분석을 새로 시작했고, 개발자분들과 함께 AS-IS 소스를 한 줄씩 따라가며 고쳐나갔습니다. 모형 자체 테스트와 전문테스트, 병행검증을 수없이 반복한 덕분에 ISIS 청약 때와 동일한 모형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었고, 샘플링했던 전문 내 모형 값들이 다 일치했을 때의 안도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희중 대리** 시스템 오픈일인 1월 27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결함 발생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시스템 오픈에 따른 뿌듯함과 직원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④ 신용보험, 보상



⑤ 고객 & 상품 & 구상



⑥ 디지털채널 & 경영지원



⑦ 데이터 & 결산지원

**신다해 선임** 센터 이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차세대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산 장비를 가산 IDC와 하남 IDC로 이전하는 작업을 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해서 팀원들 모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응원하며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낸 덕분에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한 즐거웠습니다. 되돌아보면,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함께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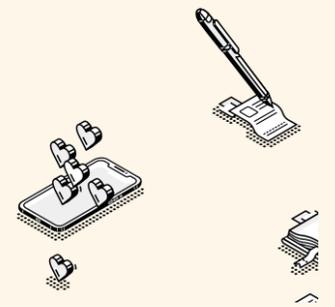
**이영석 팀장** 개인적으로 PI 단계부터 약 3년 9개월 동안 차세대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며, 첫 팀장 역할 맡아 많은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시스템 오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ISIS 시스템이 초기 혼란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활용된 것처럼 AEGIS 시스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배유리 선임** 2022년 7월 차세대추진부로 처음 발령 났을 때는 그저 오픈이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오픈한지 벌써 2달이 넘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AEGIS 시스템의 안정적인 오픈이었습니니다. 긴장을 안 하는 성격이지만, 최종점검을 하는 내내 손을 벌벌 떨면서 테스트를 했고, 오픈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대처를 하느라 숨 쉴 틈이 없었지만,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금융영업부, 법인영업부, 매출채권보험부, 상품지원부 포함해 모든 현업부서 분들 덕에 안정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의 한 팀으로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같이 고생했던 IT 영업지원부와 IT 운영지원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확인해 주었던 IT 시스템부 등,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희종 대리** 상품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던 저희 상품팀은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었기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 Factory·RBMS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청약·전략영업·보상·구상·DA 팀에서 힘써주셨고, 기안 시스템·KMS 시스템 개선을 위해 AA 팀에서 협조해주셨습니다. 또한 보험료·인수 규칙 심화테스트를 위해 상품개발부·상품지원부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다해 선임** 차세대 프로젝트가 끝나고 보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더 큼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 걱정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RX 한국거래소		2025년 3월 14일 (금)		KRX 코스닥	
삼성생명	245,000 ▲ 2,500	245,000	244,500	28,381	
두산에너빌리티	82,100 ▼ 1,000	82,100	82,000	33,801	
HD한국조선해양	26,050 ▲ 200	26,050	26,000	2,633,386	
한국전력	216,000 ▲ 1,500	216,000	215,500	18,992	
삼성SDI	22,600 ▲ 250	22,600	22,350	182,181	
LG전자	205,000 ▲ 1,000	205,500	205,000	395,258	
기아홀딩	81,700 ▲ 1,200	81,700	81,600	57,700	
삼성중공업	15,720 ▼ 60	15,720	15,710	113,669	
SK스퀘어	14,260 ▲ 180	14,270	14,260	1,778,762	
KT	92,300 ▲ 100	92,300	92,200	21,375	
SK물류	48,600 ▲ 200	48,600	48,550	34,787	
HD현대일렉트릭	55,600 ▼ 400	55,700	55,600	33,555	
우리금융지주	329,500 ▼ 1,000	330,000	329,500	14,438	
KT&G	15,980 ▼ 50	15,990	15,980	107,037	
현대모빌	95,700 ▼ 400	95,800	95,600	17,872	
카카오뱅크	101,900 ▼ 2,100	102,000	101,900	465,196	
포스코퓨처엠	22,875 ▼ 75	22,900	22,850	66,720	
LG	142,100 ▲ 1,200	142,200	142,100	28,260	
삼성전기	67,400 ▼ 600	67,500	67,400	24,850	
포스코인터네셔널	138,600 ▲ 500	138,700	138,500	36,136	
SK	57,700 ▲ 700	57,700	57,600	311,455	
하이브	137,000 ▼ 100	137,100	137,000	6,735	
유원양행	229,000 ▼ 400	229,000	228,500	12,840	
삼성에스디에스	120,500 ▲ 500	120,500	120,200	5,526	

# 祝 코스피 상장 서울보증보험(주)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희망을 더하다* *꿈을 보증하다*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 상장, 함께 걸어온 새로운 출발의 길

2025년 3월 14일, 우리 회사는 기업공개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역사적인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숨 가쁜 준비 과정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다 같이 협력하여 상장회사로 전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백정수 경영지원부 대리

### 도전의 시작

2022년 7월, 우리 회사는 첫 IPO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6월, 공적 자금 관리위원회가 우리 회사의 지분매각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1단계로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IPO전략TF를 신설하고 7월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함으로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준비를 위해 지정 감사인을 통지받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후, IPO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간들

첫 도전의 길은 순탄치만은 많았습니다. 2023년 1월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 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라는 외부 요인들로 인해 공자위는 예비심사 신청을 한 달여 앞두고 2023년 4월로 신청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고문을 빌어  
항상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사장님,  
모든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회사는 일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36개 기관투자자와 1:1 미팅을 수행하는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갔고, 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정을 진행하던 중 공자위는 불안정한 증시 환경을 이유로 2023년 4월 예정되었던 예비심사 신청 일정을 2023년 6월로 하되,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완료 시점은 유연하게 가져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는 2023년 6월 상장 추진 1년 만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45영업일이 되는 날, 거래소부터 승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023년 8월 공자위는 39,500원~51,800원이라는 희망공모가 밴드를 설정하고, 회사는 주어진 일정 내에 증권신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14개 해외 기관투자자, 33개 국내 기관투자자와의 1:1 미팅, 애널리스트, 기자 등 집단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투자 하이라이트를 어필하였으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이 발발하고,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16년간 최고

치인 4.9% 돌파하면서 수요예측 마지막 날 기관투자자가 대거 투자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자위에서는 수요예측 결과 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장 철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함께 걸어온 동행과 협력의 힘, 두 번째 도전

2024년 3월 공자위는 시장 가격 발견에 의미를 두겠다면서, 상장 재추진을 의결하여 상장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는 WITH SGI 전략을 근간으로 IR 스토리를 보완하고 BCG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3일 두 번째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거래소로 제출하고 2024년 10월 23일 예비심사 승인을 통보받게 됩니다.

회사는 공자위 및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회사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공자위는 지난번보다 4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희망공모가 밴드를 결정하여 두 번째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5개 해외기관 투자자, 26개 국내기관 투자자와 1:1 미팅,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기자 간담회 진행을 통해 회사의 투자

하이라이트를 전달하고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격을 26,000원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청약 절차를 거쳐 마침내 2025년 3월 14일 유가증권시장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상장 예비심사, DR, 증권신고서 등 IPO 여정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IPO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출발

우리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장은 단지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고문을 빌어 항상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사장님, 모든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한 걸음씩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경영지원부 IR팀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궁궐에서 마주한

# 역사,

## 광해군을 걷다

### 김병무 금융보상센터 주임 & 박지원 서울보상센터 선임

글. 김병무 금융보상센터 주임  
사진. 김상준 작가



3월 중순 평일 낮,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이 보일 정도로 회사와 가까운 창덕궁을 찾았다. 맑은 하늘 아래 봄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몸을 파고드는 바람은 제법 쌀쌀했다.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혼재된 듯한 날씨 속에서, 서울보상센터 박지원 선임님을 만났다. 업무로 바쁜 일상 속에서 궁궐 탐방 기회를 갖는 것이 흔치 않기에, 우리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창덕궁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history*

####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궁궐로 드는 길

이번 창덕궁 견학 주제는 '창덕궁이 품고 있는 광해군의 역사'로서, 우리는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했다. 창덕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평일 낮 시간대라 그런지, 평소보다도 사람도 적었고 창덕궁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 잘 느껴졌다. 과거 임진왜란(1592~1598)으로 조선의 주요 궁궐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전후 경복궁을 비롯한 한양의 주요 궁궐들이 소실된 상황 속에서도 광해군은 창덕궁의 중건을 추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축과 보수작업을 거쳐 오늘날 창덕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창덕궁 견학코스의 첫 번째 장소는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이었다. 돈화문은 창덕궁의 상징적인 출입문으로, 조선 시대에 건립된 궁궐 정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이다. 돈화문은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건축물로,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돈화문의 처마에는 철망이 둘러쳐져 있는데, 이는 건물의 부식 방지와 함께 새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돈화문을 보니 창덕궁이 오랜 세월 조선의 법궁 역할을 하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곳으로 드나들었을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과 이들 간에 벌어진 첨예한 정치적 갈등들을 상상해 보았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딱 좋을 장소인  
이곳의 마루에 잠시 걸터앉았고,  
가이드에게 낙선재와  
관련된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인정전에서 마주한 왕의 고뇌**

문을 지나 창덕궁 내부로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광해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가이드는 우리를 인정전(仁政殿)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열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창덕궁의 중심 건물로, 내부에는 '왕이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었다. 광해군도 이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중립외교를 펼쳤다. 나는 인정전 앞마당에 서서, 그가 직면했을 외교적 고민들을 떠올렸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광해군에게 중립외교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당시 명에 대한 충의를 중시하던 분위기 속에서는 외로운 길이었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지켜야 하는 내 직업과도 닮아 있다고 느꼈다. 인정전을 지나 선정전(宣政殿)으로 향했다. 이곳은 국정을 논의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으며, 광해군은 이곳에서 대동법 같은 개혁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청기와를 올린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파격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심 이반과 왕권 약화로 이어졌다. 나는 광해군이 왜 이런 실책을 범했을지 생각해 봤다. 조선 최초의 후궁 소생 서자라는 그의 출신은 평생 콤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이는 정통성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국 권위를 높이려는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위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낙선재의 고요, 그리고 광해의 뒷이야기**

견학의 마지막 코스였던 낙선재(樂善齋)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크고 웅장한 여타 건물과 달리, 소박하고 아담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소박하고 아담한 이 공간은 조선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됐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딱 좋을 장소인 이곳의 마루에 잠시 걸터앉았고, 가이드에게 낙선재와 관련된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개인적인 공간인 낙선재에서, 광해군에게는 감정적으로 사사로운 의존하던 인물인 궁녀 김개시(金介屎)가 있었다. 김개시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외교와 정치 문제에 개입하며 광해군의 조언자 역할까지 했다고 하며, 심지어 대신들의 인사 문제까지 조율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해군이 김개시를 지나치게 신뢰한 것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김개시의 말을 믿은 나머지 반정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전해진다. 당시 궁궐 내에서 반정의 조짐이 보였을 때, 김개시가 광해군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결국 광해군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폐위되고 말았다. 이후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뒤 유배 생활을 보내야 했고, 그렇게 역사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오늘날 광해군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가 걸어간 길이 옳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의 복잡한 삶과 선택들이 남긴 흔적이 창덕궁



곳곳에서 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번 견학을 통해, 단순히 궁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품은 창덕궁이 전하는 광해의 업적과 한계를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활동을 매개로 다른 부서의 선배님을 만나 창덕궁의 고즈넉함을 함께 만끽하면서 힐링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본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여,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 퇴근 후, 나를 단련하는 또 하나의 삶

저는 퇴근 후 주짓수와 MMA를 수련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무에타이, 주짓수까지 다양한 무술을 경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워왔고, 현재는 이 모든 무술을 종합한 MMA를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회사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글. 양형모 대전지점 대리



### 하루의 끝, 나를 위한 시간

저는 대전지점에서 근무 중인 양형모 대리입니다. 퇴근 후에는 주짓수와 MMA(이종격투기)를 수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태권도와 무에타이를 수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입사 후 주짓수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지금은 종합격투기(MMA)까지 함께 수련하며 더 폭넓고 균형 잡힌 무술 수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태권도로 시작된 무술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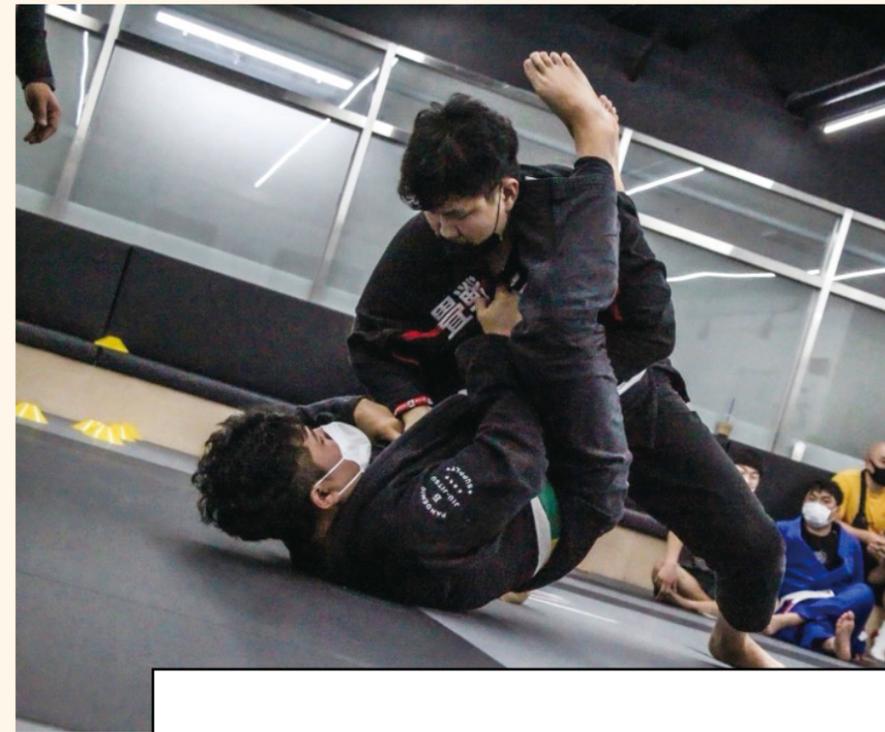
저의 첫 무술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형을 따라 시작한 태권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태권도는 제 학창 시절의 중심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수련해 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태권도 4단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권도를 통해 체력뿐 아니라 인내심, 끈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배려심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무에타이, 실전을 마주하다

성인이 될 무렵, 어떤 운동이 이어갈지 고민하던 중 태권도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무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동네 무에타이 체육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기는 일이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태권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흥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수련하던 중 지역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운 좋게 신인왕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대회에 더 나갔지만, 한 대회에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잠시 운동을 쉬게 되었고, 이어 군 입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격투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었고, 특히 입식 타격<sup>1)</sup> 외에도 다양한 그라운드 기술<sup>2)</sup>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 주짓수로 균형을 찾다

회사에 입사한 뒤 첫 발령지에서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던 중 시작하게 된 운동이 주짓수였습니다. 무에타이를 수련할 때부터 주짓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때의 마음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타격 위주의 운동과 달리 주짓수는 심하게 다칠 위험이 적었고, 다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주짓수에서는 스파링 도중 포기를 '탭을 친다'고 표현하는데, 저 역시 다칠 위험이 느껴지면 탭을 쳐 안전하게 수련했습니다.)

수련 중 두 번의 대회에 참가했으며,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운동하던 동료들보다 먼저 블루벨트로 승급할 수 있었고, 현재도 블루벨트로 꾸준히 수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권도는 초기에는 띠 색이 자주 바뀌고, 검정띠 이후에는 일정 수련 기간을 거쳐 승단하는 방식인 반면, 주짓수는 띠가 바뀌는 데에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띠의 변화가 곧 실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MMA,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대전 지역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다양한 무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제가 최근에 선택한 운동은 종합격투기(MMA)입니다. 지금까지 수련해 온 입식 타격(태권도, 무에타이)과 그라운드 기술(주짓수)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체육관에 등록했고, MMA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갑니다.

### 운동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

지금까지 해온 운동들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서, 저 스스로를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모인 종합격투기(MMA)수련은 제 삶과 회사 생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격투기를 다치지 않고, 오래 즐기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입식타격: 서서 싸우는 방식의 격투 2. 그라운드 기술: 넘어뜨린 상대편과 바닥에서 싸우는 기술

# 잠시 머문 계절, 교토의 봄

교토의 봄은 조용히 찾아온다. 북적이는 도시의 봄과는 다르게, 소란스럽지 않다. 담벼락 너머 가지 끝에 작고 여린 꽃망울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바람은 서서히 부드러워진다. 겨울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며, 교토의 골목과 강변은 분홍빛 기척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오랜 역사를 반영한 신사와 사찰이 가득한 이곳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글. 편집실

## 봄날의 풍경과 사람들

카모가와 강변에 봄을 기다려 온 사람들이 모여든다. 누군가는 자전거 페달을 느리게 밟으며 강을 따라 달리고, 누군가는 강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어 벚꽃 아래 하늘을 바라본다. 잔잔한 강물 위로 비치는 꽃 그림자,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속에 흔들리는 분홍빛. 봄의 교토는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계절을 노래한다.

벚꽃 명소로 빠지지 않는 철학의 길 역시 눈부시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수십 그루의 벚나무는 매년 잊지 않고 꽃을 틔운다.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나던 꽃이 어느새 길 위로 아치처럼 이어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속삭이고, 아이들은 꽃잎을 줍느라 바쁘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아름다운 꽃잎이 하늘에 날릴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기온 거리의 봄은 조금 더 색다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좁고 긴 골목 사이로 붉은 초롱이 하나둘 켜진다. 나무로 된 전통 가옥 사이로 스미는 노을빛과, 사뭇히 내딛는 게이샤의 발끝에서 번지는 소리 없는 봄. 거리 끝 작은 찻집 마루에도, 신사 담벼락 위에도, 어느새 꽃잎들이 내려앉는다.



교토의 봄은,  
늘 그런 식으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해의 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도시에 스며든 봄의 풍경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기억과 감정으로 남는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날 가족과 함께 걸었던 골목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혼자 떠난 여행길의 쓸쓸한 오후로.

그렇게 봄은 끝난다. 그리고 계절은 바뀌고, 교토의 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봄날 이 곳을 찾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계절이 남아 있을 것이다. 바쁜 하루 끝, 지하철 창밖 스치는 벚꽃 풍경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골목의 초저녁 풍경 속에서.

교토의 봄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자리하고, 때때로 삶의 속도에 지쳐 멈추고 싶을 때, 그곳에서 불쑥 얼굴을 내민다. 꽃잎이 떨어지던 그 골목에서처럼, 바람에 흩날리던 그 강변에서처럼.

교토의 봄은, 늘 그런 식으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 마음에 머무는 교토의 계절

봄을 느끼기 위해 이 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품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오랜 역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누군가는 옛 추억을 생각하며 길을 걷는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낸 멈춤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교토의 봄은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걸으라고, 고개를 들어 바람을 보라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다고 말해 줄 뿐이다.

봄의 절정이 지나면, 교토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꽃잎이 바람에 쓸려 거리 모퉁이에 모이고, 카모가와 강물 위로 천천히 흘러간다. 벚꽃의 계절은 길지 않다. 수천 송이의 꽃이 한순간 만개하고, 이내 눈처럼 흩어진다.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을 붙잡기 위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서고, 밤이 되어서도 불빛 아래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본다.

그것이 교토의 봄이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인지도 모른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찬란하고, 머무르지 않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 벚꽃은 해마다 피고 지지만, 울



# 봄날, 마음에 햇살처럼 내려앉는 책



새로운 시작과 설렘의 계절인 봄.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 좋은 날, 잠시 멈춰 서서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 이번호에는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하고 따뜻하게 스며드는 여섯 권의 책을 소개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봄바람처럼 가벼워지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만나보도록 하자.

정리. 편집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지은이: 김수현, 펴낸 곳: 클레이하우스, 발행: 2022년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어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니답게 살라고 말한다. 봄처럼 가볍고 솔직하게, 그러나 위로와 다짐을 담아내는 에세이. 따뜻한 날씨에 벤치에 앉아 한 장씩 넘기기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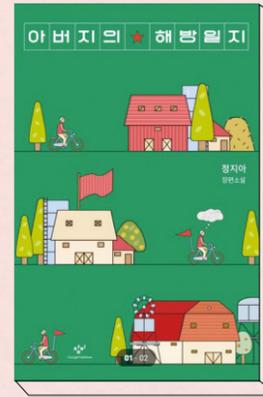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은이: 김초엽, 펴낸 곳: 허블, 발행: 2019년

무엇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바이오센서를 만드는 과학도에서 이제는 소설을 쓰는 작가 김초엽.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상의 세계를 특유의 분위기로 손에 잡힐 듯 그려내며,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끊임없이 질문해온 그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도 서늘한 감성이 담긴 한국 SF 단편집. 관계, 상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세이노의 가르침(보급판)**  
지은이: 세이노, 펴낸 곳: 데이원, 발행: 2024년

이 책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재테크 기법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대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삶의 자세부터 바로잡고, '피보다 진하게 살라' 한다.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다. 하기 싫었던 일조차 좋아질 만큼! 성공한 자산가 세이노가 전하는 인생과 재테크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봄에 읽기 좋은 자기계발서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은이: 정지아, 펴낸 곳: 창비, 발행: 2022년

소설은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시간만을 현재적 배경으로 다루지만, 장례식장에서 엄고철킨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해방 이후 70년 현대사의 질곡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웅장한 스케일과 함께 손을 놓을 수 없는 몰입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은 정지아만이 가능한 서사적 역량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정한 묘미는 어쩌면 '가벼움'에 있다. "아버지가 죽었다. (...) 이런 쟁쟁"으로 시작하는 첫 챕터에서 독자들은 감을 잡겠지만 이 책은 진중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소설이 아니다.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기에 좋은 작품으로, 봄날의 독서로 추천한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지은이: 황보름, 펴낸 곳: 클레이하우스, 발행: 2022년

서울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에 자리잡은 평범한 동네 서점,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를 비롯해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을 안식처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무언가 잃어버린 채 텅 빈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에 지금 당신을 초대한다. 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봄의 설렘과 따뜻함을 느끼기에 좋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은이: 이치조 미사키, 펴낸 곳: 모모, 발행: 2021년

밤에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는 소녀 히노 마오리와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가미야 도루의 풋풋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매우 수준 높은 청춘 소설로 탄생시켰다는 극찬을 받으며 제26회 전격소설대상 '미디어워크스문고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간질간질한 청춘의 로맨스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끌고 가, 간간하고 엄격한 심사위원 모두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남긴 소설이기도 하다. 사랑과 추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책은 봄의 설렘과 감성을 느끼기에 좋다.

## 꽃피는 봄에 딱! 최고의 야외운동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햇살이 길어지는 계절. 어느새 거리에 꽃이 피고, 몸도 마음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봄이 왔다. 겨울 내내 굳어 있던 몸을 깨우기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걷기만으로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봄날에 즐기기에 좋은 야외 운동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가볍게, 즐겁게, 건강하게. 이 계절을 더 잘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정리. 편집실

### 지니코치 구독자수\_ 11.6만 명, @zinirun

'지니코치'는 전직 육상 선수 출신인 이진이 코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달리기를 쉽게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선수 생활 중 부상으로 은퇴한 후, 러닝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 이진이 코치는 달리기를 '거친 명상'으로 표현한다. 올바른 달리기 자세, 호흡법, 부상 예방 팁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선과 함께 구독자수\_ 26.6만 명, @Togetherwithsean

'선과 함께' 채널은 러닝을 즐겨 하는 유명인들이 나와 본인의 이야기를 선과 함께 뛰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단순한 운동 콘텐츠를 넘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러닝의 즐거움과 의미를 이야기한다. 특히 선 특유의 밝고 성실한 에너지와 러닝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콘텐츠 곳곳에 담겨 있어, 운동을 넘어 삶의 좋은 루틴과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채널이다.



### 민디 구독자수\_ 20.5만 명, @mindy\_cycling

'민디'는 자전거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자전거 위에서 만난 풍경, 여행지의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사이클링을 즐기는 일상의 순간들을 담아내며 라이딩의 즐거움과 도전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민디' 채널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의 기록이다. 이 채널에서는 보는 이들에게 마치 함께 페달을 밟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한다.



### 야생민짜 구독자수\_ 15.6만 명, @야생민짜Wildminzza

'야생민짜'는 클라이밍과 아웃도어 라이프의 매력을 유쾌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채널이다. 가장 큰 특징은 클라이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이다. 실제 클라이밍 훈련 과정,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 공략법, 클라이밍 장비 리뷰 등의 정보와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솔직한 경험담을 풀어낸다.



### 민턴독학 아나조 구독자수\_ 4.81만 명, @Badminton\_Anazo

'민턴독학 아나조'는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라이프 채널이다. 주요 콘텐츠는 실전 경기 영상, 훈련 루틴, 배드민턴 기술 팁이며, 장비 리뷰, 경기 분석, 그리고 배드민턴과 함께하는 일상도 함께 다룬다.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한 사람부터, 꾸준히 실력을 키우고 있는 중급자, 그리고 배드민턴을 '라이프스타일'로 즐기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채널이다.



### 아영황 구독자수\_ 17.1만 명, @hwangahyoung

'아영황'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요가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이다. 주요 콘텐츠는 요가 루틴, 바디 밸런스 운동, 그리고 야외에서 즐기는 요가 활동이다. 또한 일상 속 가벼운 스트레칭 팁, 운동 습관 만들기, 건강한 하루를 위한 루틴도 함께 소개한다. 따뜻한 날씨에 맞춰 공원, 숲길, 바닷가 등에서 진행되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 김수열 줄넘기 구독자수\_ 1.31만 명, @Koreajumprope

'김수열 줄넘기' 채널명 그대로 줄넘기를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와 운동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다. 줄넘기의 다양한 기술과 동작을 소개하고,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야외 퍼포먼스, 팀 협업 영상, 튜토리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문화와 퍼포먼스로서의 줄넘기의 매력도 함께 전한다.





## 입맛도는 계절, 시원하게 메밀국수 한 그릇

날이 따뜻해질수록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가볍고, 시원하고, 부담 없이 한 그릇 딱딱 할 수 있는 메밀국수. 메밀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깔끔한 육수,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그 맛은 입맛을 되찾기 좋은 계절에 딱 어울린다. 한 끼 식사로도 좋고, 여름철 별미로도 사랑받는 메밀국수. 지금부터 메밀국수의 매력과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실

### 서민의 삶을 지탱한 한 그릇, 메밀

메밀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은 불순한 기상조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을 뜻한다. 재배하기 쉬운 메밀은 서민들이 널리 먹은 음식 재료 중 하나였다. 메밀로 만든 음식 중엔 특히 메밀국수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식디미방', '주방문' 같은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 메밀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그냥 '면(麵)'이라 불렀다. 그만큼 메밀국수가 널리 먹던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조선주재 미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던 '조지 클레이턴 포크'에 대한 기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포크는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조선에 발령을 받은 뒤 전주에 들려 식사한 것에 대해 메모를 남겼다. 이 메모를 보면 메뉴에 '베르미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르미첼리는 이탈리아 파스타의 일종이다. 당연히 1800년대에 전주에서 파스타를 내왔을 리는 없다. 이는 국수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당시엔 메밀면에 여러 가지 채소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편육, 기름장,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골동면이란 음식이 있었는데, 포크 역시 이 요리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밀국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대표 음식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메밀꽃 피는 강원, 메밀밥 짓는 제주

메밀로 유명한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옛부터 메밀이 흔했다. 소설가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 꽃 필 무렵>의 배경 역시 강원도 평창이다.

제주도 역시 메밀로 유명하다.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메밀 생산량은 총 2,705톤이었다. 이 중 제주도가 974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972톤이었다. 그 다음이 175톤의 강원도였다. 즉,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5배 이상 메밀을 많이 생산했다. 제주도 역시 땅이 척박했기에 메밀의 역사가 깊다. 예로부터 벼가 생산되지 않았던 화산섬 제주의 유일한 식량은 보리와 메밀이었다. 제주도에선 "아이를 낳으면 메밀로 만든 수제비인 메밀 조베기를 먹고, 사람이 죽으면 메밀로 만든 떡인 돌래떡을 넣어 장례를 치른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메밀은 제주도 사람들에게겐 생사를 함께해 온 음식이었다. 좋은 메밀의 기준은 뭘까? 메밀도 쌀과 같이 막 수확한 것들이 맛이 좋다. 햇메밀이 나오는 늦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옛부터 메밀국수가 겨울음식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메밀향이 가득한 전국 메밀국수 맛집

### 수도권

- 양지로 육수를 낸 평양냉면이 대표 메뉴 '정서진메밀면옥'(인천 서구 아라로51번길 3)
- 메밀막국수와 들깨감자용심을 선보이는 '봉평면옥'(서울 동작구 서달로14나길 24-2)
- 들기름, 물, 비빔 메밀면을 맛볼 수 있는 '메밀단편'(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강원권

-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들어가 맛이 좋은 '진솔메밀국수'(강원 양양 강현면 장산4길 7)
- 프리미엄 메밀 품종을 사용하는 전문점 '메밀꽃향기'(강원 평창 봉평면 이효석길 33-5)
- 얇은 면과 빨갛지만 절제된 양념이 특징 '신흥막국수'(강원 춘천 상마을1길 36)

### 충청권

-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시원한 메밀국수 육수 '미진'(대전 서구 둔산중로40번길 28)
- 메밀 순면 특유의 씹을수록 구수한 맛 '매향'(충남 공주 백미고을길 18)

### 전라권

- 하얀 콩 국물 부은 콩국수 맛이 일품 '메르밀 진미집' 본점(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천동로 94)
- 고슬은 비빔메밀을 비건으로 즐길 수 있는 '모밀 사계'(광주 서구 윤천로 253)

### 경상권

- 70년 전통의 완당과 발국수 전문 '원조18번 완당'(부산 서구 구덕로238번길 6)
- 장조림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의령화정소바 국수'(경남 의령 의령읍 의병로18길 9-3)

### 제주권

- 심심한 듯 깔끔한 맛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 조합법인'(제주도 서귀포 안덕면 산록남로 675)
- 장국맛이 강한 소바느낌의 막국수 '메밀의고향'(제주도 제주 구좌읍 세화남길 1)

#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우리는 종종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도 많은데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쉽고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정리. 편집실



박남주 금융영업부 주임

최준익 준법지원실 과장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를 챙겨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옆에서 무한 서포트를 퍼부어주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ㅎㅎ). 꼼꼼하고 치밀하게 업무해 나가시는 모습에, 그리고 그걸 공유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복하고 건강한 날만 가득하시고 언제나 다시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익 준법지원실 과장

한문덕 경원신용지원단 차장

막상 글을 쓰려니 한 분을 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낍니다. 저를 언급해 준 박남주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밖의 칭찬을 받아 영광입니다. 칭찬하고 싶은 분이 많지만, 한때 담당했던 상품의 구상 업무와 관련해 질문할 때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실무와 법리 측면을 모두 깊이 있게 고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논의사항까지 성심성의껏 함께 고민해주신 한문덕 차장님을 격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한문덕 경원신용지원단 차장

권수민 자산운용기획부 주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만큼 크나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소소한 대화에 진심을 담아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큰 선물도 없을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 책임감은 상당하며, 작은 체구지만 큰 힘과 믿음을 주는 권수민 주임에게 이 릴레이의 바통을 넘기고자 합니다. 파이팅~



권수민 자산운용기획부 주임

서동현 구상지원부 팀장

저를 칭찬해주신 한문덕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팀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늘 배울 점이 많으신 서동현 팀장님!!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팀장님~~



서동현 구상지원부 팀장

이순화 소비자보호실 팀장

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민 씨로부터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들으니 고마우면서도 마음가짐을 더욱 바르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업무를 늘 밝은 모습으로 쉽게 쉽게 풀어가시는 이순화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테랑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해박한 업무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업무 상대방의 입장도 깊이 배려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 늘 보고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순화 소비자보호실 팀장

양희경 대전지점 부지점장

제가 서동현 팀장님한테 업무적으로 너무 부담도 드리고, 도움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칭찬 선물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해피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지점장과 소통할 업무가 많아서 자주 전화드리고 귀찮게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주시고 프로페셔널한 마무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부지점장의 열정적인 자세 저도 본받아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경 대전지점 부지점장

강미숙 부산신용지원단 팀장

민원 관련 업무 시 이순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큰데 이렇게 칭찬 선물까지 주시니 감동입니다. 통화 때마다 이순화 팀장님의 밝은 목소리와 친절한 상담 덕분에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미숙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업무 관련 궁금증이 있을 때 연락드리면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본인 일처럼 신속히 확인해서 좀 더 정확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박한 업무 지식에 감탄했고 동료로 배려하는 모습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팀장님~



도심의 소음을 뒤로한 채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고요한 숲 길을 걷다 보면 전시관이 나타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번 봄, 도시를 벗어나 외곽에 자리한 아름다운 미술관 여섯 곳을 소개한다. 전시도 좋고, 풍경도 좋은 곳. 예술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정리, 편집실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전시: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9기 결과보고  
날짜: 2025.2.28.~5.6.  
주소: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서민 화가 박수근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미술관이다. 작가의 고향에 세워진 이곳은 그의 대표작들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도 함께 선보인다. 현재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9기 작가들의 결과보고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현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미술관을 둘러싼 조용한 마을 풍경과 박수근 공원의 고즈넉한 산책길은 봄 햇살과 함께 더욱 따뜻하게 다가온다.

**포항시립미술관**

전시: 박수철, 오래된 꿈  
날짜: 2025.1.21.~5.11.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10



경북 포항의 '포항시립미술관'은 바다와 맞닿은 환호공원 내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미술관에서는 현재 포항 지역의 원로 작가 박수철의 회고전 '오래된 꿈'이 열리고 있다. 회화 작품과 더불어 작가의 삶을 담은 아카이브를 통해 예술과 인생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전시를 감상한 뒤에는 미술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산책로를 따라 봄바람을 만끽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뮤지엄 산**

전시: 라스트 제임스 터렐 날짜: 상설전시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어우러진 미술관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이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현재는 '제임스 터렐'의 빛과 공간을 활용한 상설 전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명상관과 워터가든, 조각공원까지 감상할 수 있어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미술관을 둘러싼 숲길과 수조에 반사된 햇살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작품이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_ 탐동 시네마**

전시: 권오상: 조각(에 관한) 리포트 날짜: 24.11.12.~25.9.21.  
주소: 제주 제주시 탐동로 14



제주에 위치한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탐동 시네마'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현대미술관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이다. 현재는 조각가 권오상의 개인전 '조각(에 관한) 리포트'가 진행 중이며, 일상적인 소재들을 통해 조각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의 시도가 인상 깊다. 미술관을 둘러보며 제주의 바람과 햇살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여행 중 들르기에도 손색없는 곳이다.

**양평군립미술관**

전시: 신소장품전 날짜: 2025.3.7.~5.6.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경기 양평에 위치한 '양평군립미술관'은 북한강변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현대미술관이다. 현재 '신소장품전'을 통해 미술관이 새롭게 확보한 다양한 현대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전시 관람 후 미술관 주변의 카페 거리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에 제격이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 짧은 힐링 여행지로도 손꼽힌다.

**영은미술관**

전시: 선 그리고 색, 선을 추상 날짜: 2025.3.29.~6.22.  
주소: 경기 광주시 청석로 300



경기도 광주 깊은 숲속에 자리한 '영은미술관'은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현대미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와 전시관이 오솔길을 따라 이어져 있어 예술과 자연이 나란히 걷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봄날에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과 야외 조각 작품들이 어우러져, 전시를 감상하는 일상이 마치 한 편의 예술이 되는 듯한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마음을 맑게 비워준다.

# SGI NEWS

## 제56주년 창립기념식

SGI서울보증은 창립 제5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립기념 모범상 및 특별상, 모집종사자 연간평가, 사회공헌활동 우수자 포상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서는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WITH SGI」의 비전을 함께 새기는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2025.02.19

## SGI서울보증 상장기념식

2025년 3월 14일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에 상장했습니다.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거래소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첫 거래를 기념했습니다.



2025.03.14

2025.02.10

##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2025년 입사한 신입사원의 사령장 수여식이 본사 3층 연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53명의 신입사원 전원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하고, 신입사원들의 다짐을 담은 감동적인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서울보증 입사를 환영합니다. ^^



## 제9기 SGI드림파트너스 출범식

회사는 "With SGI, Your Best Dream Partner" 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미래세대 성장, 함께하는 나눔,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라는 핵심 테마 별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제9기 SGI드림파트너스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환경,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25.03.21

2025.03.27

## 2025년 1분기 정년퇴임식

본사 4층에서 2025년 1분기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맞이하시게 될 제2의 인생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5.04.03

**2025년 사회공동모금회 연간 기부금 전달식**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회사의 연간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연중 사용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영남 산불 피해지역 긴급 후원금 1억 원」이 포함되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

2025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가 속초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1분기 실적리뷰 및 2분기 목표달성 전략과 공시 관련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2일 차 일정은 영광호수 트래킹을 하면서 임직원들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 04.10-2025. 04.11

**우리 회사 유튜브+인스타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

3주간의 소양·직무교육을 마치고 SGI서울보증의 일원이 될 준비를 마친 58기 신입사원들!  
 무슨 일인지 시험 도중 단체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_<



**유튜브**

우리 회사가 드디어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을 했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첫 거래가 이루어지던 벅찬 순간을 생생하게 만나 보실까요?!



**S:ZIN**  
**2025년 봄호 넌센스 퀴즈**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재치 만점 넌센스 퀴즈!  
 지금 바로 에스스퀘어 설문 게시판에서 도전하세요!  
 4개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으신 분 중에서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유의 여신상은 왜 서 있을까?**

○ 자 ㄱ ○ ○ ㅅ

2

**올다가 다시 웃는 사람을 다섯 글자로 하면?**

○ ㄱ ○ ㅅ ㄹ

3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 ㅌ ○ ㅍ ㄷ

4

**프랑스에서 빨래를 널 때 하는 말은?**

ㅍ ㄹ ㅅ ○

**지난호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정답

- 1. 오일
- 2. 불어쓰니까
- 3. 안전제일
- 4. 두발이 없어서

당첨자

- 한재혁 원주지점 대리
- 김경란 영등포지점 선임
- 김태호 인천경원본부 팀장
- 김상원 서면지점 선임
- 이재훈 의정부지점 지점장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WITH가  
궁금하다면?

